

건강과 수행

치석 제거하는 천연치약 만들기

코코넛 오일은 치아의 세균성 플라크 제거에 효과적

‘나는 양치질을 정말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빨이 지저분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매일 양치를 3번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도 치아 표면이 지저분하고 색깔이 변했다면 지금 소개해 드릴 방법을 따라서 해보자. 왜냐하면 일반적인 구강 문제 중 가장 흔한 것이 치석인데 치아와 잇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치석이 쌓이면 감염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치석이 생기면 입 냄새가 나고 충치도 심해진다. 물론 제때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면 심각한 문제를 막을 수 있지만 누구나 그렇듯 치과에 제때 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아래 방법을 실천하면 완벽하게 케어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눈에 띄 정도로 효과를 볼 것이다.

코코넛 오일 효능

코코넛 오일은 다양한 요리를 통해 그 맛과 향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코넛 오일의 건강과 미용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코코넛 오일은 지구상에서 가장 몸에 좋은 오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오일의 효능은 아무리 늘어놓아도 끝이 없다. 시판하는 치약 대신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면 좋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연구 결과 코코넛 오일은 치아의 세균성 플라크 제거에 효과적이며 비용도 저렴한데 환균 및 수분이 다량 함유된 버진 코코넛 오일을 치약에 섞거나 치약 대신 사용하면 더 건강한 치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코코넛 오일을 구강 세정제나 치약으로 활용하면 입 냄새 감소, 잇몸 염증 감소 및 치은염 치료, 치아 미백, 충치와 플라크 예방 및 구강 세정, 시판 치약과 달리 항생제 등의 유해 물질도 없고 불소 성분이 없어서 치아 또한 마모되지 않는다.

코코넛 오일 구강 세정제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코코넛 오일로 행구기 전에 이빨을 잘 닦은 다음 코코넛 오일 30ml(2테이블스푼)로 5분간 입

을 행군다. 이때 코코넛 오일이 입 안과 치아에 골고루 닿게 하는데 이때 양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다음, 10분까지 행구는 시간을 늘린다. 시간이 지나면 벨고 몇 분 후 물로 입을 행구면 끝이다.

코코넛 오일 치약 만들기

코코넛 오일은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치약을 만들면 가장 이상적인데 왜냐하면 베이킹소다는 치아의 플라크를 제거하면서 미백 효과를 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둘의 궁합이 좋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게 되면 구강 상태를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재료는 코코넛 오일 2테이블스푼 (30ml)과 베이킹소다 2테이블스푼 (30ml), 그리고 맛을 내기 위한 에센셜 오일 1/2테이블스푼(5ml)이 필요하다. 여기서 에센셜 오일에는 민트 오일, 스피어민트 오일, 시나몬 오일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코코넛 오일을 몇 분간 데워 따뜻하고 묽게 만들면 다른 재료와 섞기가 쉽다.
- ② 코코넛 오일과 베이킹소다를 잘 섞어서 반죽처럼 만든다.
- ③ 에센셜 오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잘 섞는다.
- ④ 칫솔에 묻혀 평소처럼 양치질하며 혀와 볼 안쪽도 잘 닦는다.
- ⑤ 물로 행구준다.

이 수제 코코넛 오일 치약은 비울만 맞춘다면 더 많은 양을 만들어서 유리병에 보관해도 좋다. 대신 사용할 시에는 달아서 사용해야 오염을 막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코넛 오일에는 콜레스테롤 증가를 막는 포화 지방이 고농도로 함유되어 있는데 그 활용범으로는 천연 메이크업 리무버, 몸과 얼굴용 피부 보습제, 방충제, 면도 크림 내용, 주름 감소, 치질 완화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승우 기자



이긴자 일대기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77화>

구세주를 상징하는 승리탑을 세우시고 기뻐하시는 영모님

10월: 두 이긴자를 증거하는 영모님

- 1) 해와 이긴자와 밀실
- 2) 삼위일체를 계시한 십 사만 사천의 의인
- 3) 제3신앙촌의 비화(秘話)
- 4) 해와 이긴자가 일곱째 천사를 전도함
- 5) 밀실에 입문하다
- 6)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 7)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
- 8) 죄의 정제, 마귀의 급소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 9)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나이다

9)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나이다

(지난호에 이어서)

‘또 이겼다’가 돼서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가니까 “이제는 네가 완성자가 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희성이 속에 있는 마귀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완성자가 되셨죠.라고 일곱째 천사가 마음속으로 응답하니가 해와 이긴자께서 깔깔대고 막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완성자라는 것은 흠과 티가 없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를 말하며 또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전지전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 조희성이가 구세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까지 7년계를 거치면서 마귀의 비밀을 파악하여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재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조희성은 마귀 종의 괴수 마귀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조희성 마귀를 때려잡아 소변으로 피를 3년간 쏟게 만들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새로 만드셨습니다. 손톱 발톱도 다 빠지고 새로 돋아나오며, 피부도 수십 번 새로 나는 과정을 겪었으며, 손가락이 뒤로 휘어 손등어리에 가서 닿는 정도로 빠도 어린이아이처럼 물렁물렁 하여졌습니다.

상체를 뒤로 젖히면 머리가 발뒤꿈치의 땅에 닿곤 하였습니다. 계속 소변으로 피가 쏟아지는데 몸은 더 가빠워지며 은혜는 점점 강하게 연결되고 나중에는 대변으로 시커먼 핏덩이가 쏟아졌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피로 새로 조성되어 완전히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긴자가 공 출현한다는 것을 암시한 가장신앙촌 정문 앞의 승리탑

옛날 조희성이를 형성했던 피는 다 대소변으로 쏟아져 나가 없어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피로 가득차게 된 것입니다. 이름도 잊어버리고 나이도 잊어버리고 집 주소도 집도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죄인 시절의 과거를 전부 잊어버리게 됨

하나님으로부터 완성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일주일 후, 밀실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간 양복 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꺼내 보고서야 ‘아! 내 이름이 조희성이였구나, 주소가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 28번지 C 5동 4호실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잊어지면 코 닿을 곳인 신앙촌 집을 찾아가는데도 거기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갖고 신앙촌 에까지 가서는 어른에게는 물어볼 수 없어서 꼬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는 잘 몰랐어도 그 꼬마는 일곱째 천사를 잘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C 5동 4호실이 어디야?” 하고 물었더니 일곱째 천사의 아래위를 훑어보면서 못마땅하다는 어조로 “여기 이 집 아니예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꼬마는 자기 집을 알면서 물어본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고맙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와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이 서먹서먹하게 대하는고로 일곱째 천사는 그제야 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오빠는 지금 집에 없다고 하니, ‘나에게 아들도 있었구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오겠

다.” 하고 갔다가 그 약속한 날에 가니 아이들은 없고 어머니만 계시기에 그 이유를 물어보고서야 애들이 전혀 아버지 같지 않고 서먹서먹함을 느껴 피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밀실로 돌아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승승장구로 이기고 나가니까 그다음에는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와서 별로 큰 의미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완성자가 되었다’는 말씀 속에 승리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던 그다음부터 밀실 식구들은 일곱째 천사를 ‘조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일곱째 천사는 “내가 하나님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좌정 하셨으니 하나님이 되신 거죠.”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 년 가까이 되어서야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일곱째 천사가 밀실에 입문하던 날이 8월 18일 오후 3시 50분이었는데, 밀실에서 전도하러 나올 때도 81년 8월 18일 오후 3시 50분에 출발해나간 것입니다.!

1 81년 8월 18일 오후 3시 50분: 승리재단이 있는 ‘역곡역’이 ‘회문(回文, palindrome)’으로 된 역명(驛名)인데, 이는 하늘나라로 가는 출발점이자 종착지라고 주님께서 해석한 바 있다. 마친가 지로 <81년 8월 18일>은 ‘81.8.18’의 회문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81’은 하도낙서(河圖洛書)를 근간으로 하는 『육도삼략 운행도』에서 구구법(九九法)에 의한 마지막 ‘九 곱하기 九는 八十一’에 해당하는 81궁(宮) 금운천사(金運天使)를 의미하며, 정중양의 ‘8’은 노아의 여덟 식구

한편 1980년도에 저 아래 부산 기장에 계신 영모님은 신앙촌 정문 앞에다가 승리탑을 세웠는데, 높이가 약 3미터 정도 되는 아담한 탑을 각목으로 조립하고 곁에 천으로 씌어서 삼면에 ‘승리탑’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음란 죄를 짓고 목숨을 끊으려는 일곱째 천사의 마음을 돌리킨 적이 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새 출발을 한 일곱째 천사가 거의 이긴자로 다 되어갈 무렵에 가장신앙촌 정문 앞에 승리탑을 세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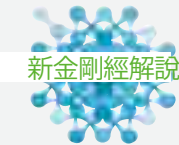
하지만 교인들은 곧 이긴자가 나올 것을 아시고 영모님께서 승리탑을 세우시게 된 깊은 뜻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승리탑을 만들었던 허보 건설부장도 그저 영모님께서 정문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승리탑을 세우라고 하시므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세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밀실에서 이긴자가 되어 산천초목이 춤을 췄던 그날, 영모님께서 가장 단상에서 북을 돌려 매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이제부터는 좋아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하대며 아찔 줄을 몰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다음호에 계속)*

박한수

가 방주(半月船)를 타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구원의 숫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오후(午後)>를 보면 ‘午’는 12 지지(地支)의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말(馬)을 의미하며 ‘後’은 한자사전에 [뒤 후/임금 후]로 표기되어 있듯이 ‘내 뒤에 이 세상 임금이 오신다(요한복음 14장 30절)’라는 성경 구절과 짝을 이룬다. 이 세상 임금은 곧 구세주를 일컬음이고, 구세주가 타고 오는 말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백마(白馬)이다. 왜냐면 구세주 금운(金運)천사의 ‘금(金)’은 오행(五行)의 다섯 가지 색(色) 중에 백색(白色)의 기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격암유록 말운론에도 “白馬乘呼喚穹(백마 승호환해; 진사성인 정도령이 백마를 타고 오시니 모든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리라)”라는 구절이 나온다.

골으로 <3시 50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1931년 신미생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이 오십 세에 구세주 완성자로 이루어졌다는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 ‘50’은 예멘동산(土)을 회복한 숫자를 의미한다. 육도삼략의 운행도와는 별도로 삼천태극일부도(三天太極一符圖)에 토운지시칠구지천(土運之時七極之天)의 패상이 있는데, 이는 중천운의 자리에 위치해 있고 중천운(中天運)과 토운(土運)은 역리(易理)로도 같은 황극과 무극의 위치고 역수로도 같은 십무극오황극(十無極五皇極)을 상징하니 그러므로 같은 오십중앙무기토(五十中央戊己土)요 인물의 상징으로는 십오진주(十五眞主)이다.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54>

지견불생분(知見不生分) 第三十一 안다(識見)고 하는 생각을 내지 마라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처님만이 부처님의 말과 뜻대로 할 수 있다. 어찌 범부가 범부의 밝지 못한 지혜로 부처님의 경계를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마음의 창을 열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불은(佛眼)을 입고 난 뒤라야 부처님의 눈(佛眼)과 부처님의 지혜(佛智)로써 제불보살(諸佛菩薩)의 뜻을 알 수 있다.

須菩提 若人言 佛說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 수보리 약인언불설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 須菩提 於意云何 是人解我所說義不 수보리 여의온하 시인해아소설의부 不也世尊 是人不解如來說說義 何以故 불야세존 시인불해여래소설의 하이고 世尊說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 세존설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

卽非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 즉비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 是名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 시명아견인견중생견수자견 수보리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석존)가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했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사람이 내가 말한 뜻을 안다고 하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여래(석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곧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닌 것을 이룰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須菩提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 수보리 발아누다라삼막삼보리심자 於一切法 應如是知 如是見 如是信解 여일체법 응여사지 여진경 여신산해 不生法相 불생법상

수보리야, 아누다라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모든 법에 있어서 반드시 이같이 알며, 이같이 보며, 이같이 믿고 알아서 법상을 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須菩提 수보리 所言法相者 如來說卽非法相 是名法相 소언법상자 여래설즉비법상 시명법상 수보리야, 법상이라고 함은 여래(석존)가 법상이 아닌 것을 법상이라고 이르는 것이다.

[해석] 석존께서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말씀 하신 것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알며, 아누다라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자는 석존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보고 믿어서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금강경은 석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알고 있던 일들이 진실함이 없었다고 하신 뜻을 사구

계(四句偈)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49년간 말씀하신 방편의 법을 모두 버리라는 뜻 이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금강경의 내용의 뜻은 무엇일까?

거기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것에는 대장경을 부처님의 지혜로 살펴보면 이해가 쉽게 가는 것입니다.

석존께서 그 당시에 (지금의 미륵불과 같이) 출현하셔서 일불승(一佛乘) 즉 성불의 법을 말씀하시면 이제까지 (지금 현재 이 순간까지) 불법을 이끌어 오지 못하고 인간 세상도 파멸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등부와 아람부의 경전에 죽어서 극락을 말씀하신 것은 범화경과 열반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까지 중생을 미래의 법신불이 오시는 때까지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는 마치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법신불인 미륵부처님께



팔상성도(八相成道) 가운데 제육(第六) 수하향마상(樹下降魔相)

서 진히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불법의 근본인 생로병사의 해탈하는 진리의 일불승의 가르침을 펴시고 계시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석존께서 말씀하신 방편의 법은 모두 버리고 새로운 법을 찾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말씀의 뜻이 올바른 것임을 아시고 바른 가르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誹謗)부터 하지 말고 의심나면 자세히 알아보고 또 알아봐야 합니다. 즉 경전에도 석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 모르면서 비방만 하면 마치 의사가 죽을 사람을 치료도 아니하

고 내 버려둠으로써 결국 죽게 되는 것과 같이 여래(미륵부처)도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강경에서도 석존의 진실된 가르침을 기록한 이 금강경의 올바른 뜻을 해설하여 주는 사람이나, 그 경전을 전하는 곳을 비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받는 과보 또한 불가사의하다고 이 금강경의 16분 능정업장분(能淨業障分)에서 말씀하신 점을 잘 알아야 하며, 또 열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말씀으로 경계의 말씀을 합니다.(다음호에 계속)*

명鍾